

장백산천지

제 147 호

2009 년 7 월 24 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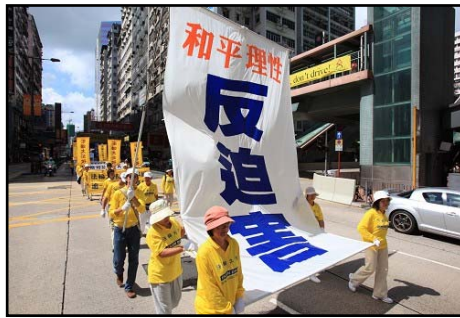
홍콩에서 반박해 10 주년 집회와 시위행진을 거행

파룬궁 반박해 10 주년에 즈음하여 지난 7 월 12 일, 홍콩파룬궁수련생들과 여러 단체의 근 1 천명이 장사처만오락청에서 “중공을 해체해야

만이 박해를 정지시킬수 있다”는 주제의 집회와 시위행진을 거행하여 수많은 시민과 중외관광객들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집회에 참가한 천국악단



평화적이고도 이성적인 반박해



박해로 세상 뜬 동수를 추모

대만에서 반박해 10 주년 대시위행진을 거행

지난 7 월 19 일 오후, 대만 대북 101 마천루 앞에서 1 천 5 백여만명 파룬궁수련생들이 모여 반박해 10 주년 대시위행진을 거행했다.

10 년래 파룬따파는 대만에서 날따라 성행되

고있지만 중국대륙에서는 오히려 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다. 10 년의 박해력사는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공이 해체되어야만 진정으로 박해를 정지시킬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대한 시위행진대오



101 마천루앞을 지나는 시위행진대오



진상을 전하는 파룬궁학원들

워싱턴에서 파룬궁박해 10 주년 대시위행진을 거행

지난 7 월 17 일, 3 천명 파룬궁수련생들과 정의인사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중공을 해체해야만 박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주제로 성대한

대시위행진을 거행하여 선량한 민중들에게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펼쳐보였고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결속할 것을 호소했다.



성대한 대시위행진대오



중공을 해체해야만이 박해를 정지할수 있다.

61 명 미국국회의원들이 대통령께 보낸 런명신



지난 7 월 8 일, 61 명 미국국회의원들이 오바마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어 미국정부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국회의원 안드루스와 공화당국회의원 스미스가 기초한 서명신에서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10 년 박해는 현대에서 가장 사악하고 잔혹한 박해이다. 대통령께서 파룬궁을 위해 의리를 지키고 공정한 말을 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예언과 하늘의 뜻



리순봉(李淳风)은 당나라 지주 옹현사람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책을 읽었고 천문, 력법, 음양학설 등을 통달했다. 주나라 말년에 잃어버린 혼천의(浑天仪)를 제조했고 “법상서”(法象书)를 써서 당태종에게 바쳤다. 그는 태상박사, 태사승 등 직위에 임명되었고 나중엔 태사령으로 승급되었다.

“비기”(秘记)책에서 《당나라 3 세후에 녀주무왕이 당실을 대리하여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란 글을 본 당태종이 리순봉을 불러놓고 상세한 정황을 물어보자 리순봉은 《이 사람은 이미 출생하여 각하의 궁내에 있소이다. 30 년후 그는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이웨다.》라고 말했다. 《만일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어떠한고?》《하늘의 뜻이니 절대 피할수 없소이다. 더구나 왕의 명을 타고난 사람이니 살해할 수 없소이다.》기원 690 년에 무측전이 황제가 되었다. 이리하여 리순봉의 예언이 검증되었다.

또한 리순봉이 1 천여년후 일어날 대사를 추측해내어 당태종에게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널리 전해온 추배도(推背图)이다. 이 예언에는 《파룬궁이 세계에 전파되고 10 년동안 중공이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하며 중공이 멸망될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세인들에게 대법의 진상을 알리고 있는 주희옥

이른 아침, 연길시진달래광장에 가면 “파룬따파가 좋다.”, “천멸중공”, “3 퇴평안”라고 쓴 프랜카드를 펼쳐든 한 중년부인이 있다. 그가 바로 세인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대담히 펼쳐나선 연길시조선족파룬궁수련생 주희옥(朱喜玉)이다.

1999 년 7 월 20 일 중공이 파룬궁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후 주희옥은 진달래광장에서 런공을 하고 행인들에게 파룬궁박해진상을 이야기하고 진상자료를 배포하며 “3 퇴(퇴당, 퇴단, 퇴대)”를 권했다. 진상을 알게 된 세인들은 그에게 감사를 드렸다. 하지만 그의 정의로운 행동에 공포에 질린 중공악인들은 그를 26 차례 랍치했고 연변정신병원과 장춘흑취자교소로 압송하여 모진 박해를 감행했다. 악경들은 그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고 매일 사정없이 구타하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이발은 발에 채우고 음식을 주입할 때 혈자판으로 찢려 부러졌다. 전기충격을 당해 살점이 뭉쳐 떨어졌으며 온몸을 굽히우고 도려내고 꼬집혀 상처뿐이었다. “쩍싼런(眞善忍)”을 수련하는 주희옥은 모진 박해속에서도 굴함없이 “파룬따파가 좋다.”를 외쳤고 “사부님이 좋다.”를 노래했다. 로동교양소에서는 두려워서 그들 집에 돌려 보냈고 다시는 로교소에서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계속 진달래 광장으로 진상을 알리러 나갔고 나는 웃으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인들에게 알리는 진상자료를 한부 한부씩 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법을 증실하고 세인을 구도하기 위해 10 년을 하루같이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희옥은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중공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루속히 각성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다.



폭로

연변박해소식

■ 지난 6 월 20 일, 룡정시파룬궁수련생 김 XX 는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공농촌의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지금 룡정지구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있다.

■ 지난 7 월 3 일, 돈화시 파룬궁수련생 왕계운(王桂云)은 단강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지금 태평령간 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있다.

